 보험개발원	<h1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1>		최고의 보험서비스 전문기관
	2023년 9월 13일 수요일 <b style="color: red;">오후 2시 30분 이후</b> 보도 가능합니다.		
작성부서	기획관리부문 조사국제협력팀	작성자	지재원 팀장 (02-368-4359)
배포일	2023년 09월 13일 (총 5매)	홍보담당	김현목 선임 (02-368-4389)

## 제목 : 보험개발원, 「2023 KIDI 보험미래포럼」 개최

- Next Generation, Data와 함께 미래로 -

### < 요약 >

- 보험개발원(원장 허창언)은 9월 13일 “Next Generation, Data와 함께 미래로”라는 주제로 『2023 KIDI 보험미래포럼』을 개최함
  - 이번 포럼은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으로 부상한 데이터에 주목하여, 국내 보험산업의 데이터 활용 현주소와 과제를 진단하고 데이터 기반의 가치창출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음
- 이날 포럼에는 감독당국과 보험사, 학계 등 보험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, 보험개발원과 보험연구원, 글로벌 재보험사와 해외 데이터분석 전문기관의 다양한 데이터 활용사례가 소개됨
  - 프랑스 재보사 스코르의 아시아퍼시픽 대표는 미국과 영국, 호주 등의 데이터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, 일본 의료데이터센터 전문가는 건강·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사와의 협업사례를 소개함
  - 보험연구원은 공공의료데이터에 초점을 맞춰 관련 제도 개선과 활용현황, 향후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고,
  - 보험개발원은 올해부터 추진한 외부데이터 결합 분석결과를 공유하며 소비자 편의 증진과 신시장 창출 등의 기대효과를 설명함
- 보험개발원 허창언 원장은 “보험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필수적”이라고 강조하며 본 포럼을 통해 데이터 활용의 가능성과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

- 보험개발원(원장 허창언)은 9월 13일(수) 오후 2시, 대한상공회의소에서 “Next Generation, Data와 함께 미래로” 라는 주제로 『2023 KIDI 보험미래포럼』을 개최하였음

보험미래포럼은 저출산·고령화, 성장 정체 등 보험산업의 과제 해결을 모색하고 미래 성장전략을 공유하는 글로벌 정보 교환의 장으로서 올해 3번째로 개최함

- 보험개발원 허창언 원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산·고령화, 시장 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현재 보험산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 과제들을 언급하며 그 해법으로 **데이터 활용**을 제시함
  - 또한, 이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유한 보험산업이 다른 산업권과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한다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적으로 확장시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함
- 프랑스 재보험사 스코르(SCOR)의 ‘디온 러셀’ 아시아퍼시픽 대표는 글로벌 보험업계의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사례에 대해 발표함
  - 신용정보나 운전기록을 바탕으로 사고리스크를 평가하여 **보험 인수 심사에 활용**하는 사례<sup>\*</sup>(미국), 거주지 및 급여 정보를 활용하여 **잠재적 고객을 발굴**하는 사례<sup>\*\*</sup>(호주) 등 타산업권의 데이터 결합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및 시장 확대 사례를 소개함
    - \* 신용카드 연체 잔액, 보유카드 개수 등의 신용정보와 사고기록, 속도위반이나 음주운전기록 등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사망률 등급화
    - \*\* 거주지 주소와 급여정보로 추정된 자산규모에 비해 보험가입금액이 적은 고객들을 추출하여 이들의 보장 니즈를 환기시켜 신규고객 창출
- 일본 의료데이터센터(JMDC<sup>\*</sup>)의 ‘요시유키 쿠노’ 데이터 총괄 임원은 일본의 건강·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 사례를 소개함

\* Japan Medical Data Center : 2002년에 설립된 일본 최대 의료데이터 서비스 회사

- JMDC가 건강보험조합에서 입수한 검진데이터와 진료기록 등의 의료 빅데이터를 익명가공·분석하여 보험사와 보험상품\*을 공동 개발한 사례와, 개인의 건강·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 등을 소개

\* 실제 나이가 아닌 건강나이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건강나이보험, 건강 개선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건강증진형 보험, 일시병 보험이나 독감보험과 같은 틈새시장 공략상품 등

□ 보험연구원 박희우 연구위원은 “한국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”고 지적하며

- 그 이유로 공공의료데이터 공유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낮은 신뢰도와 사회적 공감대 부족을 꼽으며,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철저한 정보보호조치와 인식 개선, 이해관계자 간 조율 역할의 공·사 협의체 구성 등을 해법으로 제시함

□ 보험개발원 박리노 팀장은 보험개발원이 올해부터 추진한 보험 통계와 외부기관과의 가명결합 데이터(보험-신용)로부터 분석한 결과와 활용 가능성 및 시사점을 공유하면서,

- 데이터 분석은 정교한 위험측정을 가능하게 하여 기존에 고위험을 이유로 가입이 어려웠던 보험소비자에게 보험 가입 기회를 제공하고, 언더라이팅에 활용됨으로써 소비자 편익 증진과 보험사 지원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함(붙임2 사례 참조)
- 보험개발원은 향후 금융(카드, 은행 등) 뿐만 아니라 유통, 통신 등 다양한 외부기관과의 데이터 결합을 통한 양질의 분석결과를 제공하여 보험업계의 혁신 성장을 지원할 예정임을 밝힘

※ 패널토론 내용은 9/14일 이후 유튜브 업로드 영상을 통해 확인 가능

[붙임1] 「2023 KIDI 보험미래포럼」 세부 일정

[붙임2] 보험개발원의 「외부데이터 결합 분석」 방향 및 사례

## [붙임1] 「2023 KIDI 보험미래포럼」 세부 일정

- 일시 : 2023. 9. 13(수) 14:00~17:30
- 장소 : 서울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
- 주제 : Next Generation, Data와 함께 미래로
- 프로그램

시간	내 용
14:00~14:10	■ 등록 및 접수
14:10~14:20	■ 개회사 허창언 (보험개발원 원장)
14:20~14:50	■ 발표1 보험회사의 외부데이터 활용 현황과 과제 - 박희우 (보험연구원 금융시장분석실 연구위원)
14:50~15:20	■ 발표2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보험산업 혁신 - 박리노 (보험개발원 인슈어테크팀 팀장)
15:20~15:40	< 휴 식 >
15:40~16:10	■ 발표3 글로벌 보험업계의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사례 - Dion Russell (Head of SCOR Life Mature Markets APAC)
16:10~16:40	■ 발표4 일본 보험업계의 건강·의료데이터 활용 상품·서비스 개발사례 - Yoshiyuki Kuno (Japan Medical Data Center, Executive Officer)
16:40~16:50	< 휴 식 >
16:50~17:30	■ 패널토론 - 좌 장: 성주호 (경희대 경영대학 교수, 한국보험학회 회장) - 토론자: 김동헌 (신한라이프 빅데이터 챗터장) 김성환 (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장) 장봉규 (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) 최낙천 (KB 헬스케어 대표이사) <span style="float: right;">* 캐나다 순</span>

## [붙임2] 보험개발원의 「외부데이터 결합 분석」 방향 및 사례

- 보험개발원은 기술혁신, 보험시장 포화 등 보험산업의 여러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외부기관과의 가명결합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보험소비자 편의 증진 및 신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
  - 외부기관 금융정보와 보험개발원의 보험정보를 가명결합하여 생성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교한 위험측정 및 신시장 발굴(타겟 고객층 확보) 등 보험산업 지원을 위해 연구 중

< 보험개발원(보험정보)과 외부기관(금융·신용)의 보유데이터 결합 >

- 가명결합 데이터 : 보험 · 금융 · 신용 결합정보 (2017년~2021년, 5개년, 총 18.8억건)
- 분석에 사용된 통계분석방법 : 상관분석, 인과분석 등
- 데이터결합기관 : 금융보안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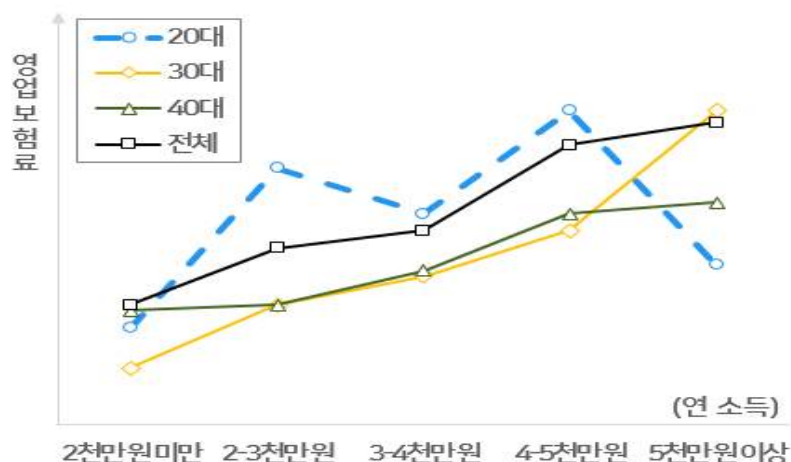
### □ (분석 사례) 암보험(생명) 영업보험료와 외부데이터(연소득)의 활용

- 20대(청년층)의 경우, 통계적으로 타 연령대와 달리 연소득이 가장 높은 구간에서 영업보험료가 낮은 경향\*

\* 20대 이외 연령 : 소득이 증가할수록 암보험 영업보험료 증가

- 이는 미래에 발생할 암 발병 등 긴급한 의료비용 부담에 경제적 어려움이 없어 보험 가입 필요성을 적게 느끼는 20대 고소득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측됨
- 보험사는 이러한 계층(소득은 높지만 보험가입률은 낮은 집단)을 미래 주요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 보험의 효용성 강조 필요

<연령대별 연소득에 따른 암보험(생보) 영업보험료 수준>



## [붙임3] 포럼사진

- 개회사(보험개발원 허창언 원장)



- 개회사(보험개발원 허창언 원장)



○ 단체사진(보험개발원 허창언 원장)

